

## 행복한 금요 편지

# 늘 듣기에 더욱 그리운 그 말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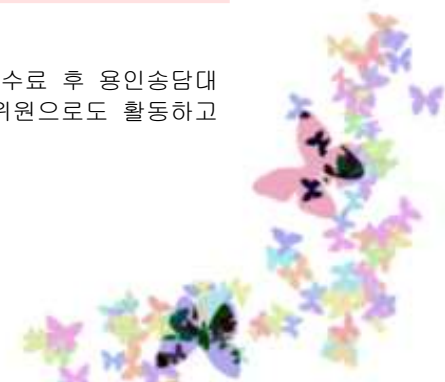
박상규<sup>1)</sup>

용인송담대학교 교수

그 분이, 그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한 것은 더 오래 전이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1학년 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. 체육시간에 발목을 다쳐 깁스를 했을 때 그 분은 한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. "단디하지." 그때 '나는 다쳐 아픈데 그 한마디 말뿐이시네.'라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. 중학교 1학년, 열네 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법도 했습니다. 하지만 그 멋진 말씀은 1933년 태어나서 어린 시기에 일제 강점기를 이겨내고 한국전쟁을 거쳐 젊음을 해군으로 보내시며 국가에 청춘을 바치셨던 아버지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담긴 멘트였을 것입니다.

이후에도 수시로 같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수년이 흘러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로 생각합니다.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고, 부모님 곁을 떠나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 제 스스로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서 더욱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. 아버지께서도 막내둥이를 타지로 보내는 걱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요.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도, 15년의 회사생활을 끝내고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도 당신께서는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하셨습니다.

1) 박상규 교수님은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박사과정을 수료 후 용인송담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,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.



1984년 중학생 1학년 시절에 들었던 '단디해라.'라는 한마디에는 '조심하지 그랬니.', '앞으로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'는 걱정과 당부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30년이 지난 후에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. 작년에 대상포진으로 입원하시게 되었을 때 병문안에서 나도 모르게 '단디하시지.'라는 말이 나오고서야 알았죠. 그 말에 걱정과 당부, 가까이에서 지켜드리지 못하는 자식으로서의 죄책감이 숨어있는 말이라는 것을 아버지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. 그리고 당신께서는 대상포진이 낫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자식을 서울로 보내며 그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.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.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대로 하고 가족들을 잘 건사하며,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,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된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시라는 것을...

이제는 팔손을 훌쩍 넘기시고 거동조차 불편하신 아버지이지만 불혹을 지나 지천명에 가까워진 막내둥이에게 아직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. KTX를 타면 3시간도 안 걸리는 길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랜만에 고향에 갔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자식을 보면 자식에 향한 마음은 열네 살 때나 지금이나 항상 같으신가봅니다. 무심한 듯 애정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 그립고 오래도록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아버지.

한선행복포럼에서는 '행복한 금요편지'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.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.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!